

## 전북

군산시 새만금 가력도항~비안도 도선운항 추진

##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갈등 새 불씨로

## 부안군 반발

군산시가 새만금 가력도항과 옥도면 비안도간 도선 운항을 추진, 행정구역 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안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가력도와 비안도 도선운항 추진을 위해 면허취득에 필요한 도선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가력도항 사용승인을 농립수산부에서 받아야 한다.

림수산부에 요청했다. 가력도항과 비안도는 직선거리로 7km가량 떨어져 있다.

현재 도선 운항을 위해서는 도선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어항 또는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관련 기관에서 받아서 해양경찰서에 제출하면 되지만 새만금은 현재 공사 중이므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농립수산부에서 받아야 한다.

노광석 군산시 해양수산과 주무관

은 “기존에 있던 군산~비안도간 항로는 3시간이 소요돼 섬주민이 여객선을 이용하지 않고 사선을 이용해 선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지난 2002년 운항을 중지했다”며 “현재 비안도 주민 465명의 불편이 9년동안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운항시간이 짧은 가력도와 비안도간 도선 운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정술 부안군 새만금정책과 계장은 “가력도는 처음부터 대

체 어항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도선이 출입할 수 있는 어항이 아니다”며 “더구나 현재 행정구역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군산시가 도선 운항을 재개하려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금배 부안 대체어항 어민협회장은 “가력도항은 현재 어선만 이용하기도 협소한 곳이다”며 “접안시설이 처음부터 어선을 목적으로 설치돼 도

군산시 새만금 가력도항~  
비안도 도선운항 추진

선 접안을 위해서는 신규 공사를 해야 하므로 공사중 어선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만금 내측에는 450척의 어선이 정박한 공간이 없는 상태로 가력도항에 70억원을 들여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완공후에도 내측 어선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 군산 동국사  
소조불상·복장유물 국가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은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전북도 유형문화재 제213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동국사는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 1650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 분명한 조성주체(조각승 응제작) ▲ 불상 조상에 소요된 시주물들 ▲ 수많은 시주자 등이 날 날이 기록돼 있어 복장의식·사원 경제사·조선후기 불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형식적으로 흐르기 이전 단계의 소조불상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발산리 석등과 발산리 5층석탑 등 2개의 국

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이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